

## ‘세계’의 발견: 고하 송진우의 정치사상

김영수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눈앞에 명백히 존재하는 ‘세계’(world)를 발견한다는 말은 언어의 유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명이나 세계관에서는 실제로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의 본질을 순수한 이념(idea)으로 파악할 때 그렇습니다. 조선의 성리학도 그런 사례입니다. 본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4세기 말 토지개혁을 완수하고 조선을 건국할 정도로 실천적 시대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래 점차 이념화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에 세계사적 변화가 닥쳤을 때, 위정척사파는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리’(理)를 세계와 우주의 본질로 보는 성리학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먼저 위기의 본질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성리학의 이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현상적 경험(phenomenal experience)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김옥균 등 개화파가 그 효시입니다.

고하 송진우의 세계의 발견은 3단계를 거쳤습니다. 제1단계에서, 그는 청년이 될 때까지 10여 년간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2단계에서는, 일본 유학을 통해 성리학에서 벗어나 비로소 ‘세계’를 발견하고 근대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유교를 비판하고, 개인과 민주주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3단계에서, 그는 3.1운동의 주역으로 참여하고, 세계사와 공진하는 자기와 한민족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세계 이해는 완속해져, 1925년 무렵 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하고, 세계 대세에 따라 민족의 진로를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동아일보 운영을 비롯한 긴 일제 식민지 시기, 그리고 짧은 해방 정국에서 발휘된 고하의 뛰어난 정치적 판단력과 실천력은 <‘세계’의 발견>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이념, 그리고 현실주의 정치사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적·정치적 유산은 아직 한국 사회와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제4차산업혁명과 신냉전 시대 세계사의 갈림길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오

늘 고하 선생을 추모하고 그 사상의 궤적을 재음미하는 역사적 의의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I. 민족사에서 본 고하의 죽음: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주의(world-ism)를 위한 첫 순교

죽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모하는 고하 송진우 선생도 그런 분입니다. 고하는 자연인이 아닌 역사의 인물로 생을 마쳤습니다. 여기 이승만 대통령의 만시(輓詩)가 고하의 서거를 그렇게 기렸습니다.

의인은 예로부터 자리에 누워 죽는 게 드물고  
한 번 죽음을 심상히 여겨, 집에 돌아가듯 하네.  
온 나라가 슬퍼하고 처자들도 우는데  
선달그믐 망우리에 눈만 펄펄 흩날리네.

개관사정(蓋棺事定)이라고 합니다. 죽은 뒤 비로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온 나라가 왜 고하의 서거를 슬퍼했겠습니까? 그가 한 개인을 넘어 민족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하의 죽음에는 민족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첫 순교라는 의미입니다. 고하는 해방된 조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과정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1945년 해방 당시 공산 진영의 핵심적인 적이었습니다.

고하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장구합니다. 1920년대 한국 사상계에 사회주의가 유입되어, 한때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지식인 대우를 받지 못할 정도로 널리 퍼져있었습니다. 세계혁명을 꿈꾼 사회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며, 민족진영을 적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922년경부터 독립운동 진영은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고하는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새가 수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도저히 조선을 떠나서는, 또한 조선을 잊어버리고서는 일각일초라도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sup>1)</sup>고 할 정도로 철두철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고하가 이끈 동아일보를 공격하고,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더 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1928년 고하는 동아일보 함북지국장 회의장에 들

1)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장래”, 동아일보 1925.8.28-9.6

어가던 중 공산청년들에게 몽둥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몽둥이로 구타당하고 짓밟힌 고하는 유혈이 낭자해 쓰러졌습니다. 피가 온몸에 흘러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하는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라며 민족의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박헌영, 홍명희, 김준연 등 저명한 공산주의자들을 동아일보 기자로 채용할 정도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하와 공산진영이 타협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입니다.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공산진영의 정치적 야심이 고하에 의해 막히자, 공산주의자들은 고하를 첫 번째 제거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처럼, 일제 말 고하는 조선총독부 측의 정권 이양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한국민중과 연합국만이 정권 이양의 주체고, 개인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몽양 여운형은 총독부 측의 제안을 수락해 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조직했습니다. 건준은 곧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항해 고하는 1945년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국대)를 소집했습니다. 그 강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연합국에 감사를 드린다.
2. 국민대회를 열어서 국내외 민족 총역량을 집결한다.
3.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3.1운동의 법통)을 지지한다.
4. 보수와 진보 두 갈래의 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정당정치를 실현한다.

독립과 건국의 대원칙으로서, ①연합국과 그 군정을 받아들이고, ②정부수립의 기초로 국민대회를 소집하고, ③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고, ④공산당 1당 독재가 아닌 다당제를 실시할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준은 국대를 부정하기 위해, 국대 소집 하루 전인 9월 7일 박헌영의 공산당과 합작해 인민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한국의 다른 정치세력과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산국가를 수립한 것입니다. 국대의 강령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공산진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로써 해방 후 한국인의 정권 인수 체제가 건준과 국대로 양분되었습니다.

고하는 인민공화국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민공화국을 해체하지 않는 한 대화가 불가능함을 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군과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와 별개로, 한국 정치세력의 이념적 분단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고하는 9월 16일 한국민주당도 결성했습니다. 그는 원래 분열을 우려해, 정

부 수립 전에 정당을 결성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의 거센 공세에  
대항하려면 정당 조직이 시급했습니다. 한민당의 주요 정강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습니다.

1.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
2. 토지제도의 개혁, 특히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토지소유제도의 합  
리적 편성
3. 국민 경제생활의 균등화
4. 특수한 국가적 요청이 없는 한 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채택
5. 언론·집회·결사·종교의 자유
6. 중소기업의 육성
7. 의무교육제도의 확립

토지개혁이나 균등한 경제생활은 사회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경제가  
전제입니다. 정치체제도 공산주의의 민주집중제 같은 사실상 독재가 아니라 국  
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입니다. 요컨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  
을 목표로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정체(民主議政體)를 수립해야 합니다. 독립한 국가가 될  
지라도 그 권력이 한 사람의 것이 되고 일 계급의 독재한 바가 된다면 무엇  
으로써 우리의 생명재산과 자유가 보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 우리는 만인  
이 기구하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될지니 …(1945년 12  
월 23일 연설)

1997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인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  
주의보다, 자유경제가 계획경제보다 우월한 체제임을 최종 입증했습니다. 하지  
만 1945년 당시 이런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  
니다.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계급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를 인류의 희망  
으로 여겼습니다.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 알릴루예바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  
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갈파한 바 있습  
니다. 또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류의 경험과 학문이 성취한 참다운 지혜입니  
다. 그리고 1945년 이후 한반도의 역사야말로 이 금언을 입증하는 최고의 사

레입니다.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을 옛 트위터인 엑스에 올렸습니다. 그 사진 보면, 남쪽은 휘황찬란 빛으로 가득 차 있지만, 북쪽은 칠흑같은 어둠뿐입니다. 그 놀라운 차이는 1948년 체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대런 아세모글루 등이 저술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대표적 사례로 들어, 지리나 역사, 인종이 아닌 ‘제도’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해명했습니다.

누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까? 1945년 대한민국의 앞날을 놓고 모두가 허둥대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고하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고창했습니다. 국대와 한민당을 통해 그 초석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배척과 수난의 가시밭길은 험난했고, 마침내 건국의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고하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신전에 배향된 첫 순교자입니다.

둘째, 고하의 죽음에 담긴 두 번째 민족사적 의미는 한국 ‘세계’주의(world-ism)의 첫 순교라는 것입니다. 고하는 조선과 세계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반도가 세계 구성의 일부분이며, 또한 조선민족이 인류 전체의 일부분 이상에는 세계대세의 추이가 직접 간접으로 조선사회에 파급이 될 것은 물론이며, 따라서 조선사회의 변동도 세계대세의 추이에 막대한 영향이 될 것도 상상할 수 있다.<sup>2)</sup>

논리적으로 당연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위정척사사상도, 동학사상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조선은 조선일 뿐 세계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세계가 순수한 조선을 오염시킨다고 분노했습니다. 금수같은 세계를 배척하고, 조선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문명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하 역시 철저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고하의 민족주의는 ‘정서적 민족주의’(emotional nationalism)보다 ‘성찰적 민족주의’(reflective nationalism)입니다. 성찰적 민족주의는 세계주의와 통합합니다. 진정 민족을 위하하면 세계를 알고, 세계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하는 그저 애국심만으로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해방 후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면, 두 유형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신탁통치 문제는 해방 후 한국인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는지를 시험하는 최초의 리트머스지

2)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장래”, 동아일보 1925.8.28-9.6

였습니다.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장 5년 간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등 4대국의 공동 관리 아래 신탁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즉각 거센 반탁운동에 나섰습니다. 공산당도 처음에는 반탁이었으나, 소련의 지령에 따라 찬탁으로 돌아섰습니다. 민족진영은 반탁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탁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임정과 고하가 대립했습니다. 임정은 반탁과 함께 미군정도 부정했습니다.

반탁 시위가 거세지자, 미군정은 “탁치는 침략이 아니라 독립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의 원조와 후견을 의미하는 것이니, 한민족은 냉정하기 바란다.”는 사태 수습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임정은 “우리는 탁치도 싫고 후견도 원치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독립이다. 자주독립이다. ‘포츠담·카이로선언’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해 미군정의 통치권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임정은 주권 행사의 첫 지시로서, 내정부장 신익희의 명의로 포고문을 공포하고, 서울 시내 9개 경찰서장은 내정부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훈령했습니다.

고하는 임정의 이런 입장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군정을 부정하고 임정이 주권 선언을 한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공산당의 활동을 이롭게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여론의 나라이므로, 민주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해 신탁통치안을 취소시킬 수 있다. 셋째, 반탁으로 국민이 지나치게 흥분하면 뒷수습이 곤란하니,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시국을 원만하게 수습해야 한다. 고하는 지도자들마저 ‘즉각 독립’이라는 ‘정서적 민족주의’에 휩쓸려 민족의 대계를 그르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1945년 12월 29일 저녁, 김구 주석의 거처 경교장에서 신탁통치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목격한 청년 목사 강원룡은 당시의 고하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모두들 소리소리 지르고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그저 흥분해가지고 서로 욕설을 하고 이렇게 야단치는데, 이 양반(고하: 필자 주)이 가만히 앉았다가 일어서서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일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민족의 대계가 아니냐. 그런데 우선 여기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의문 원문을 읽은 분이 있느냐. 그래 적어도 민족의 영수들이 모여서 철시하는 것도 좋고 무슨 미군정청을 배척하고 협조를 안한다고 사보타주하기로 전부 그랬거든. 그런데 다 좋으나 그래 청년들이라면 몰라도 민족의 영도자들이 그 원문 내용을 지금도 지금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신탁통치론에 격분한 민족지도자들은 실상 원문도 읽지 못했습니다. 강원룡 목사에 따르면, 김구 주석은 “구두를 벗어 흔들면서 ‘이것이 양화 아니냐. 모두 이를 벗고 짚신을 신고 다니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민족의 운명이 달린 중대사조차 감정에 휩쓸려 경솔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고하가 걱정하는 점이었습니다. 고하는 심지어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어 한국의 정당·사회단체들과 의논해 5년 이내에 통일정부를 세운다는 내용이 진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좌익 진영은 “역적이다. 너희가 미국과 싸고 하는 게 아니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sup>3)</sup>

고하는 해방 후 임시정부 봉대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탁통치 국면에서 미군정 인정 여부를 놓고 임정 진영과 정면으로 대립했습니다. 고하는 미군이 최소 2년은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반탁운동으로 미군이 떠나면, 한반도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거나 조직화된 공산세력에 의해 통일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6.25전쟁 개전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전선까지 일방적으로 밀린 것을 보면, 고하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요컨대 미군정의 부정은 의도와 달리 민족에 큰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하는 해방 후 소집한 국대의 강령 첫 번째 조항으로 ‘연합국에 감사’를 표명했고, 세 번째 조항에서 임정 법통론을 주장했습니다. 고하가 볼 때 임정과 미군정은 공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군정을 주권의 경쟁자, 심하게는 주권을 뺏은 침략자로 보았습니다. 그 반대로 고하는 미군정의 시정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임정의 관점에서 보면, 고하는 침략자에 협조하는 매국노였을 것입니다.

사실 임정은 이미 그런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1945년 임정요인 환국 환영행사 준비 간담회에서, 임정 내정부장 신익희, 지청천, 조소앙 등은 국내 지도자 숙청론을 언급했습니다. 일제 시대에 국내에 남은 자는 모두 친일파로 보고 숙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하가 미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고하에 대한 임정 요인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고하가 반탁-찬탁, 친군정-반군정의 갈림길에서 암살된 것은 상징적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해방 후 한국인의 ‘세계’에 대한 첫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하의 죽음은 한국현대사에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발생한 첫 비극이자 순교였습니다. 하지만 고하의 세계 이해는 아직도 한국정치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3) “내가 본 혼돈의 해방공간”, 강원룡 목사 인터뷰, 동아일보 2004.1.19

## II. 고하 송진우의 ‘세계의 발견’

어떤 정치세력이 고하를 암살했는지는 아직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하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방정국에서 고하는 공산주의, ‘정서적 민족주의’와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념주의/순수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리는 인류의 미래는 이념적입니다. ‘정서적 민족주의’는 이념형으로서 순수한 민족주의를 지향합니다. 이념과 순수를 지향하니, 현실과 유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모두 비극적 현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념주의/순수주의’는 한국철학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 철학적 특징은 ‘세계성의 결여’(the absence of worldliness)입니다.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정신’(mind)에서 진정한 이데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궁극적으로 내면의 문제로 봅니다. 중종대 조광조는 “만일 오늘과 같은 시대에 옛날의 이상적인 정치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급선무로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전하께서는 ‘도를 밝히는 것’(明道)과 ‘혼자 있을 때 조심하는 것’(謹獨)을 마음 다스리는 요체(治心之要)로 삼고, 그 도를 조정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즉 기강이 어렵지 않게 설 것이며, 법도도 어렵지 않게 정해질 것입니다. 공자가 “석 달이면 가하고, 3년이면 성취할 수 있다.” 한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sup>4)</sup>

‘마음을 다스리는 것’(治心)이 정치의 요체라는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성리학의 정치관입니다. 한국학자 오구라 기조(大倉紀藏)도 한국의 문명적 특징을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조선 혹은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철학 그 자체가 영토·사람·주권으로 응결된 것이 조선 혹은 한국이다. 여기에서 철학이란 ‘리(理)’를 말한다. 주자학에 의한 국가 통치 이후, 이 반도를 지배해 온 것은 오로지 ‘리’였다. 항상 ‘하나임(一個性)’을 주장하는 ‘리’였던 것이다. ‘리’란 무엇인가? 보편적 원리이다. 그것은 천(天), 즉 자연의 법칙과 인간 사회의 도덕이 한 치의 오

4) 伏願殿下。誠以明道謹獨。爲治心之要。而立其道於朝廷之上。則紀綱不難立而立。法度不難定而定矣。然則夫子三月之可。三年之成。亦無不在乎是矣。(『靜菴集』 권2 「謁聖試策」)

차도 없이 일치된, 아니 일치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절대적인 규범이다. 오늘날의 한국인의 도덕 지향성은 이 전통적인 ‘리’ 지향성의 연장이다. 조선 왕조의 철학자들은 실로 치밀한 이기론(理氣論)을 수백 년 동안이나 되풀이했다. 5)

오구라 기조는 이런 이념주의가 영토, 즉 자연세계까지 침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理)라는 관념은 이제 우주가 되었습니다. 관념에 의해 세계가 무화(無化)된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한말의 저명한 의병장인 면암 최익현은 1898년 국가의 위기와 처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른바 병이 생긴 근원은 또한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곧 성상의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않은가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 성상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종사가 빈터가 될 우려가 있고 민생들이 어육(魚肉)이 될 참화가 있을 것입니다. … 이것이 신이, 천하 국가 흥망성쇠의 근본이 모두 성상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어, 요컨대 생각하여 바로잡는 데에 달려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의 병폐를 구제하는 방도가 무엇이 이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6)

이런 리(理)의 세계관에서 보면, 서양은 상품과 성욕에 중독되어 오랑캐보다 못한 금수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말 위정척사파의 정신적 지도자 이항로는 “통화(通貨)와 통색(通色)의 화는 한번 돌이킬 새도 없이 짐승과 오랑캐에 빠지는 것”, “북쪽 오랑캐는 이적인지라 오히려 말할 수 있지만, 서양은 짐승이니 말할 수 없다.”7)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국과 서양문명의 수용은 조선을 짐승의 나라로 타락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위정척사파의 분노는 단발령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최익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화 이후부터 선왕의 법제를 모두 고치고 한결같이 왜놈의 지휘대로 쫓아서 중화를 오랑캐로 만들고 인류를 금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개벽 이래 없었던 큰 변란인데, 머리를 깎는 한 가지 일은 더욱 심한 것입니다.8)

5) 大倉紀藏,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7), p. 20.

6) 『勉菴集』 卷4, 辭議政府贊政疏

7) 『華西集』 卷35, 洋禍

8) 『勉菴集』 卷4, 宣諭大員命下後陳懷待罪疏

그런데 이 세계관을 뚫고 ‘세계’를 발견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유길준의 경우입니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일본을 방문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  
다.

1881년 봄에 나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의 새로운 문물을 시찰하  
러 갔었다. 그곳 사람들의 부지런한 풍습과 여러 가지 물건의 풍성한 모양  
을 보자, 나는 일찍이 나 혼자 추측하던 바와 같지 않음을 깨달았다. 일본  
사람 가운데 견문이 넓고 박학한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들의 의견  
을 듣고, 또 새로 나온 책을 보며 되풀이하여 생각하는 동안, 그러한 사물  
의 진상을 파헤쳐 본 즉, 그 제도나 법규가 서양의 그것을 모방한 것이 10  
중 8, 9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9)</sup>

유길준은 ‘서양’을 발견했고, 이 체험은 그의 세계관을 뿌리채 바꾸었습니다.  
1883년 보빙사 일행으로 미국에 간 그는 보고 들은 사실을 힘껏 기록했습니  
다. 그 결과가 『서유견문』입니다. 19세기 말 조선인의 ‘세계’의 발견에 대한  
종합보고서이자, 미래 조선이 나갈 지도였습니다.

고하의 세계관과 정체성은 3단계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1단계는 유학자, 2단  
계는 반유학 근대인, 3단계는 민족주의적 세계인입니다. 2단계의 계기는 조선  
의 멸망, 3단계의 계기는 3.1운동이었습니다.

제1단계에서, 고하는 청년기까지 10여 년간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7세부터는  
저명한 의병장 기삼연(奇參衍)에게 배웠습니다. 기삼연은 한말 위정척사파의  
거두 기정진의 제자였습니다. 고하는 정통 성리학의 학맥에 닿아 있었던 것입  
니다. 그러나 서울에 머물다 내려온 부친 송훈(宋勳)은 나라를 구하려면 “신학  
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영학숙(英學塾)에 고하를 보  
냈습니다. 고하는 일어도 배웠고, 1908년 마침내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  
지만 1912년 쓴 “인생의 가치”라는 글은 여전히 유교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습  
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仁)이라 하고, 맹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  
(義)라 하였으니, 지극하다도다! 이 말씀이여.<sup>10)</sup>

9) 유길준, 채훈 역, 『서유견문』 (서울: 대양서적, 1973), p. 31.

10) 『學界報』 제1권 제1호, 1912.4.1

하지만 3년 뒤 제2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사상개혁론”이란 글을 보면, 고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인에서 근대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충격이 급진적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고하는 유교의 세계관을 깨고 반유교론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활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활은 새로운 사상에서 태어난다. … 공자의 가르침은 타파될 시대에 이르렀으니 타파하여야 하겠다. … 공자의 가르침(孔敎)은 옛날 것을 흠모하는 사상의 원천으로 … 사회는 정체되고, 발전의 희망은 막히고, 백성의 기운은 얽매여, 진취적인 기상이 결핍하게 된다. 그래서 무궁한 진리를 천명하고 무한한 행복을 증가하게 하는 인류문화의 진보의 원리에 어긋난다.<sup>11)</sup>

반유교의 두 번째 이유는 유교가 전제사상(專制思想)으로서, 민주사상의 평등정치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 중심주의로서, 조선의 민족정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가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제도는 부락사회의 산물이고, 전제시대의 여파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가문이 우선이고 민족은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고하는 ‘개인의 자립’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강제 결혼을 타파하고, 자유 연애를 고취하자고 합니다. 넷째, 한학 같은 허영교육을 타파하고, 생산에 필요한 실리교육을 주장했습니다. 현대는 실리적 문명입니다. 다섯째, 상식적 실업을 타파하고 과학적 실업을 일으키자고 역설했습니다. 상식적 실업은 물리 연구나 기계 사용을 하지 않고, 관습과 경험에 따라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의뢰하지 말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 “자립하는 힘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고하는 비로소 유학의 껍질을 벗고 나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눈떴습니다.

고하의 제3단계 변신은 3.1운동을 거치며 성취되었습니다. 당시 중앙학교 교장이던 고하는 3.1운동의 거사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로 인해 혹심한 고문을 받고, 1년 6개월간 투옥되었습니다. 3.1운동은 고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사상 확립의 종착점이었습니다. 나아가 고하는 3.1운동을 한민족의 역사 4,000년에서 획을 긋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했습니다.

---

11) 『學之光』 제3권 제1호(총5호), 1915.5.2

3.1운동은 조선민족에 대하여 4,000년 이래 윤희 반복하여 오던 동양적 생활양식을 정신상으로나 문화상으로나 정치상으로나 근본적으로 민족적으로 파괴 건설하려 하는 내재적 생명의 폭발이었다. 그러므로 조선 역사에 있어서 처음 보는 운동인 만큼 그 의의가 심장하고 그 관계와 영향이 중차대한 것도 물론일 것이다. … 어찌 조선민족의 혁신운동 사상에 일대 기적이 아니며 일대 위관(偉觀)이 아니라.<sup>12)</sup>

3.1운동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첫째, 4000년 동안 지속된 동양적 생활양식을 파괴하고 민족의 관점에서 신문명을 건설하려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3.1운동이 정신, 문화, 정치에 걸친 종합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변혁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역사에서 일대 기적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사상의 근거가 세계적 대역론인 민족적 자존과 인류적 공영의 정의 인도의 관념하에서 전국적으로도 민중이 칼 뒤에 쇠사슬이 있더라도 의연히 서며 태연히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3.1운동에서 민족적 자존과 인류적 공영이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의와 인도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위에서 만났습니다. 한민족은 비로소 유아론(唯我論, solipsism)에서 벗어나, 세계 인류의 이상에 동조하고 공진하게 된 것입니다. 3.1운동은 한민족이 인류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중이 주체가 된 사건입니다. 그 이전 한국 역사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소수계급의 정권 쟁탈의 변혁이 아니면 존주양이의 사상에서 배태되며 출발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3.1운동은 한민족이 중화에서 벗어나 민족이 되고, 한민족이 인류가 되고, 한민족의 주체가 민중이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민족, 인류, 민중이 3.1운동 속에서 함께 탄생했습니다.

고하에 따르면, 3.1운동은 “조선 민족의 내재적 생명이 세계적 신문화에 접촉되어 폭발된 일대 각성의 소리”였습니다. 중화사상과 지배계급에 억압되어 잠재된 민족의 생명이 ‘세계’의 발견과 함께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3.1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기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세계의 대세는 제국주의의 발흥과 동양항로의 발견으로 인하여 서력동점(西力東漸)의 대세를 순치(馴致)하였었다. 이리하여 은사국(隱士國)의 조선은

12)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장래”, 동아일보 1925.8.28-9.6

점차로 세계적 조선이 되어가며 폐쇄하였던 반도는 졸지에 열강의 각축장으로 되려 하는 형세가 현저하였었다.<sup>13)</sup>

19세기 말 한국의 지정학에 근본적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서양 제국의 아시아 진출로 인해, 조선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변방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정학적 위치가 은사국 조선은 세계적 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식민지화, 태평양전쟁, 미소의 진주와 남북분단, 6.25전쟁, 냉전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것은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조선은 더 이상 유아론의 세계에 머물 수 없었고,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고하는 갑신정변이 “이러한 기운을 간파하고 4000년 이래의 신기축을 전개하여 일대 변혁을 시도하려 하였던 것”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갑신정변의 사상적 근거는 정권쟁탈이나 존주양이적 사상과 달리 “현대문명을 긍정하며 민족적 복리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각성으로써, 4000년 이래의 굳어온 민족 전체의 사상을 일시에 개혁하려 하였던 것”이니 끝내 실패했으나, “개국존민(開國尊民)의 큰 이상”은 독립협회, 자강회, 대한협회 등으로 발전했습니다. 고하는 갑신정변이 3.1운동으로 꽃을 피웠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학당을 중심으로 한 민중적 반란”입니다. 고하는 동학운동이 “쇄국·양이의 구사상에서 그 운동의 배태가 생긴 결과 한갓 일청전역(日淸戰役)의 대사단을 야기하였을 뿐”이고 소득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셋째는 의병운동입니다. 고하는 종교적 배타운동인 동학과 정치적 근왕(勤王) 사상인 의병운동이 실패한 것은 “그 정치적 이상과 논리적 가치가 도저히 현대의 신사조에 대조하여 볼 때, 그 사상적 근거와 토대가 너무도 박약하고 배치되었던 까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하는 3.1운동의 사상만이 한민족의 미래를 이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족 자유의 3.1운동만은 … 그 동기와 사상이 내적으로 민족적 복리를 기도하는 점에서 외적으로 세계적 사조에 순응하는 점에서 설령 일시적으로 완벽의 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조선민족의 양심적 발동으로 보아서

13)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장래”, 동아일보 1925.8.28-9.6

또한 세계 인류의 사상상 공명(共鳴)으로 보아서 확실히 도덕적 승리인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sup>14)</sup>

고하는 3.1운동을 통해 민족과 세계, 인류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민족의 미래에 확고한 신념과 방향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계 감각이 심화되어 종합적으로 표현된 논설이 1925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장래”입니다. 이 논설은 고하가 1925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1회 범태평양회의에 참가한 뒤 쓴 결과물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태평양 연안의 각 민족대표들이 모여 문화, 종교, 경제, 정치 등 모든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조선을 비롯해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 글에서 고하는 “조선이 세계 구성의 일부”라는 분명한 인식 하에, “현하의 세계와 조선과의 영향관계의 현상을 그대로 냉정하고 엄숙하게 관찰하여서 조선민족의 당래(當來)의 운로(運路)를 개척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차절(緊且切)한 문제”라고 천명했습니다. 1876년 개국 이래 이런 세계 인식에 도달하기까지 50여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개진된 세계 인식은 놀랍습니다. 1차대전과 워싱턴 군축회의의 귀추를 분석하고, 세계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소련과 자본주의 미국의 충돌을 예견하고, “세계대세의 운명이 이에서 결정될 것이며, 또한 인류의 문화상 총결산이 이에서 감정(勘定)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그 사이 중국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충돌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사의 진로를 2-30년 앞서 정확히 예견한 것입니다. 나아가 미소 냉전과 인류문화의 미래에 대한 혜안도 놀랍습니다.

한국은 유아론에서 벗어나 ‘세계’를 발견한 지 반세기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세계 인식에 도달했습니다. 그 통찰이 고하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하는 19세기 말 이래 한민족의 <‘세계’ 발견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III. 맺음말: 고하 송진우의 정치사상과 한국의 미래

지금까지 고하 송진우가 걸어온 정신적·정치적 역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하

14)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장래”, 동아일보 1925.8.28-9.6

가 직면했던 역사적 과제는 지대했습니다. 고하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고하는 그 과제와 정면 대결했고,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이 극복해야 할 사상적 과제는 성리학의 극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리학의 유아론(solipsism), 그리고 그 정치적 입장인 위정척사론입니다. 성리학은 천박한 사상이 아니며, 심오한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위정척사론자들은 면암 최익현처럼 중화사상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순결했으며, 불굴의 용기를 가진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병운동의 선봉에 섰습니다. 고하의 스승 기삼연도 의병장이었습니다. 그 순결성과 의로움 때문에 성리학은 더욱 극복하기 힘든 사상입니다.

고하 역시 성리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고하 자신의 지적처럼 민족과 민주, 자유와 과학이 없는 유교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사상입니다. 고하는 일본 유학, 그리고 조선의 멸망을 계기로 성리학을 넘어섰습니다. 고하가 평생 언론인으로서 살고, 문맹퇴치사업에 힘을 기울인 것도 신문화를 계몽하기 위한 것입니다.

20세기 초 조선의 정치적 과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극복이었습니다. 한민족은 3.1운동을 통해 그 장애를 넘어섰습니다. 당장은 정치적으로 패배했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할 민족과 민중이 탄생했고, 인류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통해 한국 역사 최초로 한국은 세계사와 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3.1운동에 대한 고하의 기여는 지대했습니다. 그 자신도 치열한 실천을 통해 확고한 역사적 신념을 세울 수 있었고, 역사를 낙관하게 되었습니다. 고하는 민족의 진로가 세계 인류의 이상에 부합하면, 언젠가 반드시 독립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세계 인류의 대역론·대이상에 기초한 주의와 실현은 결코 시간적 반동으로 저지할 수 없으며, 또한 무력적 제재로 억압할 수 없는 것이 역대의 사실이다. 이것은 지나간 프랑스의 혁명사와 미국의 독립전쟁이 우리들에게 명백한 실증을 예시한 바가 아닌가.<sup>15)</sup>

1920년대부터 고하가 직면한 새로운 사상적 과제는 공산주의였습니다. 고하는 민족을 부정하고, 일당 계급독재를 옹호하는 공산주의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는 일종의 시대 풍조로서, 그 허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고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국대를 소집하고 한국

15)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장래”, 동아일보 1925.8.28-9.6

민주당을 창당해 공산주의에 맞설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고하가 마지막으로 직면한 사상적·정치적 과제는 ‘정서적 민족주의’였습니다. 정서적 민족주의는 강렬한 민족애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고한 이념을 표방하는 성리학이나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민족주의의 결점은 객관적 사고, 정치적 사고의 결여입니다. 그래서 의도와 달리 사태를 악화시키고, 비극을 초래합니다.

1931년 발생한 만보산사건이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만주에서 수로를 개설하던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 벌어진 충돌입니다. 이 사건이 전해지자 조선에서 대대적인 화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고하는 이 사건이 일본 군벌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간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아일보가 이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자, 대중은 동아일보에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고하는 대중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신문에 사설을 게재해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요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만보산사건은 유언비어이다. 둘째, 화교를 해치면 중국의 100만 조선동포가 위태롭다. 셋째, 설사 만주의 우리 동포가 중국인에게 해를 당했다 해도, 화교를 해치면 결국 중국의 우리 동포에게 해가 돌아간다. 넷째, “우리가 장차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하자면 동양에서는 첫째 중국과 친선하여야 될 터인데, 이 무슨 철없는 망나니 짓들인가?”였다. 고하는 먼저 진상을 살피고, 사태의 파장을 검토하고, 민족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성찰적 민족주의의 태도입니다. 고하가 생각한 성찰적 민족주의의 태도를 봅시다.

만보산 충돌 사건을 단순하게 중국인의 조선민 압박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심히 생각이 깊지 못한 짓이다. 좀 더 냉정·침착하게 사태의 진상을 포착하고, 그 이면에 잠재한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를 조용히 관찰한 뒤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 동포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방도를 잘못하고 그 목표를 어그러뜨린다 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 각지에서 생긴 불상사는 실로 통탄할 일이다. 동포 제위의 냉정하고 현명한 태도를 다시 촉구하고자 한다.<sup>16)</sup>

성찰적 민족주의는 민족적인 문제에 대해, 첫째, 냉정·침착하게 사태의 진상을 포착하고, 둘째,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를 조용히 관찰하고 판단을 내리고, 셋째, 뜨거운 민족애로 인해 방도를 잘못하고 목표를 어그

16) “만보산사건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1.7.5

러뜨리면,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사태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냉정하고 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Max Weber는 정치가란 신념윤리보다 책임윤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동기가 선하다고 결과가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자기 책임이 아니라 세상이 문제라고 비난하는 것은 ‘유아적 정치가’입니다. 진정한 정치가는 정치의 대의를 중시하면서도, “이런 신념을 현실에서 실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Weber는 정치가의 자질로서 열정, 책임의식, 균형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열정이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대의명분에 대한 헌신입니다. 균형적 판단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열정과 균형적 판단 사이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고하야말로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리학의 유아론에서 벗어나 <‘세계’의 발견>에 이르고, 3.1운동에 헌신하며 그런 자질을 성숙시켰습니다. 고하는 교육자, 언론인, 경영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했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식민지기 황석우의 인물평에서도 송진우는 ‘정객’(政客)으로 불렸습니다.

씨는 이론가가 아니다. 그는 모략 종횡의 가장 활동적인 정객이다. 조선 안의 인물로서는 정치가로의 그럴듯한 소질이 제일 풍부한 인물은 송 씨일 것이다. 그는 조선 안의 인물로서는 벌써 정치가로의 급제점 이상을 돌파한 인물이다.<sup>17)</sup>

하지만 정인보는 고하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절조와 지략, 포부를 함께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절조는 열정이고, 포부는 책임의식과 균형적 판단을 뜻합니다.

세상 어지러움이 오래이면 선비는 스스로가 뜻을 세워가지 못할까 근심을 하거니와, 혹 절조를 자랑할 수는 있어도 지략과 포부를 갖춘 이는 드문데, 그 절조와 포부를 겸해 갖춘 이로 내 친구 중에 고하 송군이 있다.<sup>18)</sup>

고하는 식민지기의 온갖 정치적 곤란 속에서 뛰어난 정치적 자질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만보산사건에 대한 대응을 보면, 고하의 정치적 자질을 잘 볼 수

17) “나의 팔인관”, 『삼천리』 제4권 4호(총25호), 1932.4.1.(4월호)

18) “古下先生 宋君之碑”

있습니다. 그의 적절한 판단과 대처가 아니었다면,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큰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중국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이로선언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만보산사건의 파장이 커졌다면, 한국의 독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고하의 정치적 자질이 가장 빛난 때는 해방정국이었습니다. 해방의 감격은 잠깐이고, 한반도는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독립과 체제 선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탁통치와 군정 인식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고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의 선택을 확고히 견지했습니다. 또한 반탁과 친 미군정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날 당대의 역사를 돌아보면, 고하의 판단과 선택이 대한민국의 정로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겨우 40여 년 만에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성취했습니다. 2차대전 후 독립한 식민지국가 중 유일무이하고 가장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과 신냉전의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미래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시대에 고하를 되돌아보는 이유입니다. 2년 전 조태열 현 외무부장관이 쓴 고하에 대한 평가로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난세다. 난세의 지도자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과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는 지도자여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담대하게 헤쳐 나갈 용기와 식견, 지혜와 통찰력을 갖춘 지도자여야 한다. 신냉전 시대라고 불릴 만큼 국제질서가 요동을 치는 대변환의 시대에 우리만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는 없다. 필자는 최근 고하 송진우 선생의 일대기를 읽으며 고하야말로 오늘과 같은 난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sup>19)</sup>

---

19) “난세의 지도자상”, 『국제인권보』 643호, 2022.7.15